

얼마전 사업용으로 《한국》을 다녀온 이웃친 친구를 만나 그곳의 정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다.

초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세월》호침몰사고에 대한 이야기였다.
하기야 여기 카나다땅에서든 동료들끼리 만나면 전부 《세월》호 소리뿐이다.

객관적으로 보아도 《세월》호참사는 이남당국의 무대응, 무책임, 무능력으로 인해 침몰하는 배와 함께 바다물속에 빠진 300여명의 사람들중, 그것도 대다수가 어린 학생들을 눈을 편히 뜨고 보면서도 한 단행도 구원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인재이고 관재였다.

그의 략이고 희망이었던 소중한 아들딸들이 침몰된 배안에서 손톱이 빠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도록 안타까이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죽어가는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했던 부모들의 그 심정, 죽음을 앞둔 몸부림속에 아이들이 혼신을 다해 써보냈을 《엄마 사랑해》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아내는 부모들의 그 비통함을 생각하면 저절로 숨이 차오르고 나도 모르게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것을 어쩔수가 없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으면 자식없는 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유가족들까지 있었겠는가. 아마도 그래서 세상에서 표현력이 가장 풍부한 조선말에조차 파부나 홀아비, 고아라는 말은 있어도 자식없는 부모를 가리키는 말은 없는것이 아니다.

그 어떤 보상으로, 사품치는 추모의 눈물마도 살점처럼 귀한 자식들을 잃은 부모들의 그마도 큰 비애와 슬픔을 덜어주지는 못하리라.

《〈정부〉는 살인마. 내 아이를 살려내라》고 웨치는 유가족들의 분노와 항의는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허나 그속에서야 《정부》에 쏠리는 여론의 비난을 따내로 돌리며 유가족들의 쓰라린 마음속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비비대는것과 같은 비인간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들이 빼졌이 나타났다.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은 침몰사고가 일어나자마

박 에 서 본 《 종 북 》 소 동

자 《복소행》설을 내돌리는가 하면 민심의 분노를 놓고 터무니없이 《북의 지령을 받는 좌파들의 준동》이니, 《실종자가족행세를 하는 종북주의자들의 선동》이니 하고 떠들어댔다.

인터넷트상에서는 분노한 유가족들의 항의행동을 두고 《미개한 국민》이라느니, 《천문시위군》이니 뭐니 하다못해 《종북》으로 매도하고 여론몰이를 하는것과 같은 실로 민기 어려운 잔인한 장면들이 펼쳐졌는가 하면 슬픔과 비애에 잠긴 실종자가족들이 모여있는 진도실내체육관 주차장에 왕창같이 《종북척결》구호를 내건 차가 등장하는 두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도 벌어졌다.

심지어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리본과 탕기의 노란색까지도 《종북》표현으로 매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것이 과연 리성을 가진 인간들이 옳긴 옳은가. 생애같은 자식들을 줄지에 잃어버린 부모들의 쓰라린 아픔을 자기의 고블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인간감부들이를 조선사람이란 하나의 이름으로 부른다는데 대해서 수치와 모멸감에 통탄하지 않을수 없다.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세월》호사고의 진상규명과 그에 대한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이남민중의 요구가 《종북》행위로 몰리고있는 비참한 현실이다.

이런 비극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2010년에 있는 《천안》호사건 때에도 당시 리명박《정권》은 《북 어찌에 의한 침몰》이라는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온갖 의문투성으로 되어있는 이 《조사결과》라는것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수많은 의혹의 문제점들을 불러일으켰으며 결과 이남의 많은 사람들이 그 조사결과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실을 바라는 의혹의 눈초리들은 그가 누구이든 《종북》세력으로 몰려 여지없이 매

도리였으며 오늘까지도 《천안》호사건의 진상은 흑막속에 묻혀있다.

박근혜 《정부》들어 최근에는 외교문서까지 위조해가며 《유신》독재시기를 방불케 하는 서울시 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해냈으나 그 진상이 여지없이 드러나 세인의 웃음거리가 되고말았다.

그런가하면 제2의 《천안》호사건으로 불리우는 무인기사건이 터졌을 때는 《복소행》으로 억지다짐으로 몰아붙였고 그러한 당국의 무분별한 처사에 의견을 내놓았던 한 야당의원이 보수세력에게 순식간에 《종북》으로 몰리우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현상도 저들에게 불리한것이라면 모두 북과 억지로 연결시키며 《종북》소동을 벌리는 이남당국의 태도와 자세를 보면서 그들의 뿌리깊은 동족에 대한 대결관념이 《유신》독재시구나 그 후에가 집권한 오늘에나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느끼게 된다.

아울러 이남당국이 벌리는 《종북》소동은 동족대결을 추구하는것과 함께 《정권안보》를 위한 《만능의 열쇠》로 리용되고있다는것도 빼놓을수 없는 사실이다.

날로 더욱 로골화되는데 현 남조선 보수집권세력의 반인민적 탄압과 《종북》소동은 오늘날 남녘민중의 초보적인 알 권리, 말할 권리마저 완전히 짓밟아버렸으며 오로지 순종하고 감수하는 《속매》으로 살것을 강요하고있다.

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와 같은 권력기관을 《대선》에 개입시켜 불법적으로 권력을 타고있을 현 이남당국이 그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민인들의 정당한 초보시위투쟁을 《종북좌파세력》의 란동으로 몰아가며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는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이다. 사실상 남조선에서는 지금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요구는 물론 아름다운 제주도를 외세의 침략기지로 전변시키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한 투쟁도 다 《종북세력》에 의한것으로 란도질당하며 탄압되고있다.

이남당국의 교활하고 은폐된 보도관제로 언론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는 한갖 시너,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거짓보도와 진실은폐, 《정부》감싸기에 급급하고있는 형편이다.

신과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와 전횡으로 하여 정의와 진리,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마저 말살되어 인류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했던 기억하기조차 끔찍한 종새암흑시기가 오늘날에도 존재하고있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종북》소동, 마녀사냥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이남의 현실이다. 물질적 《부》를 떠드는 화려한 간판밑에 몇푼안되는 돈이 아깝고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하여 수백명 아이들을 바다물속에 내버리고 《동맹》의 허울속에서 민족의 존엄을 통채로 팔아 외세의 배를 불러주며 《대박》이라는 간판밑에 겨례의 소원인 통일도 경제제리력으로 계산되어 그 필요성이 좌우되는 이 비참한 현실이 바로 이남사회의 실상이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불매마다 세상에서 처음으로 금속화학과 최초의 철강선인 거북선을 만들어낸 백의민족의 존엄이 몰락당하고 반만년의 찬란한 민족사에 흠집을 당하는것만 같아 민족적수치감파 분노로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다.

남조선은 사실상 돈과 권력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지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종북》이라는 유령에 의해 《내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리념상 또 하나의 분렬사 회로 되고말았다.

분렬된 우리 민족의 비극을 다시한번 가슴아프게 헤집는 《종

북》, 정말 있거나 한것을 두고 그러는가.

얼마전 남조선에서는 1969년 이른바 남조선해방전략당 간첩사건이라는 모략소동에 걸려들어 사형을 선고받아 고인이 된 사람에 45년만에 그의 무죄가 밝혀졌으며 70~80년대에 악착한 고문으로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던 한 랍복 어부가 38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알려져 지난 시기 벌어졌던 모략극, 날조극이있는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현시기 《종북》소동의 실체를 짐작케 하는 력사의 교훈이다.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세의 민족분열책동에도 서슴없이 맞장구를 치며 동족인 북을 적대시하다 못해 《종북》소동, 허구까지 만들어내어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탄압하는 이남땅에서의 《종북》소동은 1950년대 미국에서의 매카시광풍과 다를바 없다. 명백히 말하건대 오늘날 이 남보수진영이 떠들어대는 《종북》이라는것은 이남사회의 민주주의를 짓밟고 저들의 장기집권과 《정권안보》를 위해 제멋대로 꾸며내는 극악한 동족대결광풍의 산물이다.

다시말하여 그것은 《가만 있으라. 의심하지나 반대하면 차탈없이 죽인다.》는 이남 극우보수세력의 파쇼독재, 불통정치의 대명사이다.

형체가 보이지도 않고 만져볼수도 없는 《종북》은 보수진영에게 있어서 저들의 반북대결정책과 반인민적독재정치를 합리화하고 평화정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세력들을 마음대로 잡아들여 《로리》할수 있는 《지옥의 기름가마》였을뿐아니라 《정부》에 쏠리는 민심의 분노를 기만하고 《정권》위기로 부터 벗어나는 출로로, 《천당의 길》로 보였던것이다. 권력에 환

장한 그들은 권좌를 위해서라면 아야 《하느님》이래도 《종북》으로 몰아갈것이다.

허나 허욕이 패가라 보수세력의 《정권》위기가 가져지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그의 반인민적, 동족대결적정체만을 드러냈을뿐이며 더우기 6.4지방자치제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더욱 교묘해지고 한층 더 심화되고있는 남조선 당국의 《북풍》조작, 《종북》소동은 파멸의 길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있다.

박근혜의 화려한 선거공약에 환상을 가졌던 민중, 《안녕하십니까》라는 대자보열풍을 통해 눈을 뜨고 불통정치, 독재정치에 《안녕치 못하다》고 불만을 터뜨린 민중, 광기어린 동족대결소동과 아이들의 생명을 놓고 도박을 한 《세월》호참사에 분노한 남녘민중이 투쟁의 거리에 펼쳐나섰다.

짓밟힌 민주주의와 삶의 권리를 되찾고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펼쳐나선 민심의 분노가 오늘날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노란탕기와 리본의 끝없는 물결속에 곱들거리고 밤바다처럼 출렁이는 저 초보시위에서 타오르고있으며 투쟁의 해불로 번져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보수당국의 파멸의 운명을 예고하고있다.

《이제까지 〈정부〉는 가만 있으라고 했지만 더는 참고 가만있을수 없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웨치는 남녘민중의 분노가 온 남녘땅에 울려 퍼지고있다.

얼마전 재미동포들이 미국신문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전면광고들을 실었는가 하면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불법 〈대통령〉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웨치고있는 등 독재 《정권》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는 온 세상에 메아리치고있다.

통 일 문제 의 본 질 을 외 국 한 기 만 타 령

지금 남조선에서는 그 무슨 《통일 대박》이니 뭐니 하는 해괴한 말이 유령처럼 나돌고있다.

박근혜는 말끝마다 《통일대박》을 운운하면서 《통일대비》니, 《통일 준비위원회구성》이니 뭐니 하고 부산을 피우는가 하면 주변나라들과 멀리 유럽에 가서까지 《통일대박》을 광고하고있다. 박근혜의 치미바람에 휘둘러 그 패당들도 입을 모아 《통일 대박》을 외위대며 그 무슨 《연구》니 뭐니 하는 늬름을 벌리고있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을 엄중히 외곡, 변질시키고 겨례의 통일념원을 모독하는 극악한 반동일론이다.

조국통일은 남조선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승고한 위업이다.

여기서 최우선적이며선 증핵적인 문제는 민족분렬의 원흉이고 조국통일의 최대의 장애물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는것이다.

우리 나라의 분렬사체가 외세에 의

하여 강요된것이다. 해방후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우리 겨례의 지향에 도전하여 우리 나라를 물로 분렬시켰다. 민족의 분렬이 70년 가까이 지속되고있는것도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집요하고 끈질긴 간섭책동과 주요하게 관련되어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중끼리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은 그처럼 당연한것이다.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이 이루어지면 좋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그러나 유치하고 황당무계한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에는 돈으로 모돈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된다는 황금만능의 저렬하고도 추악한 속물적근성이 진하게 배여있다.

《대박》이라는 말 자체가 일하기 싫어하고 공짜를 좋아하는 건달행이들과 사기꾼들, 장사치들이 투전판에서 써온 《횡재》, 《행운》을 뜻하는 속어이다.

《체제통일》의 허황한 망상에 들떠 민족의 절절한 통일념원을 돈으로 저울질하고 통일이라는 신성한 이름

에 쓰레기같은 날말을 갖다붙인것자체가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한때 리명박패당도 돈이면 만사가 다 된다는 추악한 속물근성으로 《통일항아리》라는것을 들고나와 만사람들을 웃기였다. 그것 역시 《분렬항아리》, 《대결항아리》로 겨례의 규란과 배격, 조소를 받았다.

《리명박근혜정권》이고 보니 《통일항아리》라령의 《련속극》으로 《통일대박》이라는것을 굴리해낸 모양이다. 그 무슨 《선택포기》니, 《북핵불용》이니 하며 박근혜가 《대북정책》으로 내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것이 리명박이 내들었다 《비핵, 개방, 3 000》의 북사관이고 보먼 크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공화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제안들을 내놓고 민족의 평화와 단합, 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올해에도 공화국은 력사적인 신년사를 통하여 조국통일의 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현실적이며 실천적의 의가 큰 종대제안들을 내놓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최대의 정의와 아량을 보이였다.

북과 남의 온 겨례는 이미 보수패당이 벌려놓은 2010년 6월 지방자치제선거전 야에 서해상에서 련이어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 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때 벌

려놓은 왕제산간첩단사건재판놀음, 그해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남조선정국을 일대 소용돌이속에 몰

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는 남조선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 분노가 남조선정역을 휩쓸게되자 위구를 느낀 보수패당은 거기로부터의 출로를 동족을 절고드는 《북풍》조작책동에서 찾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현 보수 집권세력이 력대로 써먹은 《북풍》조작소동에 대마리며 어리석게 놀아내고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그러나 남조선집권세력은 미국과 야합한 북침전쟁도발책동, 동족대결소동에 광분하였으며 그로 하여 내외의 비난이 높아가자 여론을 기만하기 위해 《통일대박론》을 들고나온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모든것을 돈으로 저울질하는 황금만능의 권리로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고 분렬로 고통받는 겨례에게 더 큰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줄뿐이라는것을. 많은 학생들을 포함하여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조선 전라남도 진도알바다에서의 대형터객선침몰참사도 바로 끝없는 자본의 탐욕, 《만사돈사》라고 생각하는 박근혜 《정권》의 반인민적악정이 빚어낸 비극이다.

나라가 분렬되어 반세기도 훨씬 지나 근 70년이 되어오도록 통일을 이루지 못한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조국통일문제의 근본성격을 부정하고 그것을 한갖 장사치들의 흥정몰로, 투전판의 도박놀음으로 묘사한것은 겨례의 통일념원에 대한 악랄한 우롱이고 모독이다.

《북풍》조작소동은 이미 허황성과 그 음모적정체로 하여 그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북풍》조작책동으로 초매워졌은 동족간의 대결뿐이다.

박근혜를 비롯한 보수집권세력은 《북풍》조작이 위기에서의 출로가 아니라 자멸의 첫걸음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치출하기 그지없는 《북풍》조작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본사기자 리 경 순

명분없는 대 결 조치를 해 제 하 라

남 조 신

남조선의 인터넷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24일 성명들을 발표하여 대결적인 《5.24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5.24조치》가 취해진 때로부터 4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남북관계가 단절된지 4년이 되었다는 의미라고 개탄하였다.

《5.24조치》는 명분없는 대결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죄하였다.

이 조치는 남북사이의 대결을 심화시켜 남북경제협력에 가져올 리익을 침해하였

고 남조선기업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비난하였다.

각 계 단 체 들 성 명 발 표

군민총궐화통일협의회는 성명에서 《5.24조치》는 동

족대결을 추구한 리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이라고 단죄하였다.

이 조치로 하여 남북경제협력사업들이 파란되고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있다고 하면서 《정부》가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관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것이라고 성명을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대 결 조 치 의 해 제 를 요 구

남조선의 야당이 23일 성명을 발표하여 《5.24조치》를 철회할것을 당국에 요구하였다.

성명은 《정부》가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5.24조치》를 시행한지 4년이 되었다고 밝혔다.

《5.24조치》는 남북교역 전면중단, 국민들의 방북불허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차단해왔다고 폭

로하였다.

북을 제재하겠다고 시행한 이 조치로 하여 오히려 남측 기업들이 더 고통받고있으며 남북경제협력의 토대로 심각하게 훼손되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통일대박》만을 고집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통일준비위원회》 구성이

저 분노의 웨침소리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그들모두가 《종북》세력일수는 더욱 없는것이다.

얼마나 보기가 처참했으면 《동맹자》라고 하는 미국과 서방언론들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내놓고 비난하며 야유, 조소하였겠는가.

그에 대해서는 너무도 수처스럽고 창피하여 더 말하지 않느니만 못하다.

지난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참사후 30여일이 지나도록 한방울도 없었던 눈물을 뒤늦게 야 흘리는척하며 자기의 책임을 슬쩍 부하들에게 들씌웠다. 그러다보니 《하염없이》 흘린 그 눈물은 《내가 왜 이런 참화를 일으킨는지 역을하라는 눈물》, 《책임회피를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는 조소와 패배를 받았다. 만백성의 눈은 속일수도 피할수도 없는법이다.

민주주의를 짓밟는 독재자들은 백성을 천시하고 우습게 여기지만 제일 무서운것이 바로 분노한 민심이다.

이제 머지않아 있게 될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민심의 분노가 어떻게 무서운것이며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뿌리내리고 꽃이 피어 열매맺는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간 남조선의 민주화 투쟁 선렬들이 남겨준 진리이다.

앞으로 북과 남사이의 관계가 풀리자고 해도,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고 나아가 통일의 날을 앞당겨주기 위해서도 상처입은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를 하루빨리 되살려야 하며 《종북》소동과같은 반북동족대결정책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북과 남이 마음과 마음을 합치는것은 온 민족이 바라는 일이며 그것은 통일로 가는 길이다.

아, 우리 겨레모두가 꿈에도 바라는 통일, 한생을 기다려온 통일의 날을 평온이 간일 이 배 두눈으로 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글을 맺는다.

재카나다동포 임 민 국

최근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의 《북풍》조작책동이 더군다나 열거할 수 없는 것들을 자아내고있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이 선거때마다 어떻게 하나 더 많은 선거표를 걷어모으기 위해 상투적으로 써먹은것이 바로 《북풍》조작이었다.

있지도 않은 《북의 도발》을 떠들어대며 정세를 긴장시키고 간첩사건을 조작하여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위기에 몰린 저들의 처지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하여왔다.

이번에도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지방자치제선거가 가까와오자 그 어느때보다 공화국의 핵을 겨냥하며 《핵시험준비가 마지막단계에 이르렀다.》느니, 《북핵시험위협》설을 떠들어내고있는가 하면 국방부것들을 내세워 《북은 없어져

야 할 나라》니 뭐니 하는 극악한 말발까지 쳤쳐대었다.

또 얼마전에는 남조선에 떨어진 무인기가 《북의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터무니없이 길고들다 못해 누군가 내다버린 변소분짜를 공화국의 무인기라고 떠들어대 세상사람들을 웃긴것이 바로 남조선의 국방부나부랭이들

을 비롯한 현 보수매거리를 이었다.

현 보수집권세력의 비호두문하에 있는 군부장관들이 최대열점지역인 서해 5개 섬수역에서 매일과 같이 총포실탄사격훈련을 벌여놓은 끝에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공화국의 합선들을 향해 사격을 가하는 극히 위험한 도발행위를 한것도 바로 지방자치제선거가 박두하자 《북의 도발》을 여론화하여 민심을 다른데로 돌려

《북풍》소동은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는다

이렇듯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남조선인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그 분노가 남조선정역을 휩쓸게되자 위구를 느낀 보수패당은 거기로부터의 출로를 동족을 절고드는 《북풍》조작책동에서 찾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현 보수 집권세력이 력대로 써먹은 《북풍》조작소동에 대마리며 어리석게 놀아내고있지만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5. 2 4 조치》해제를 요구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